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

주간 ESG 뉴스 2026.05.15~2026.05.22

구분	시장 동향
Energy	● **세액공제 만료로 위기에 처한 미국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** (2026.05.17, FT)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축소하되, 7월 4일까지 착공·공사 입증 시 기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함. 마감 기한을 앞두고 인력·장비 부족과 허가 지연이 겹치며 다수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의 기한 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
	● **BNEF,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태양광 부상 전망** (2026.05.19, BloombergNEF) BloombergNEF은 에너지 시장 충격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 전망. 데이터센터 확산 등이 전력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, 공급 과잉·기술 발전·가격 하락으로 6년 내 태양광이 세계 최대 단일 전력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
Government	● **캐나다 정부, 신규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토대 마련** (2026.05.16, FT) 캐나다 총리는 앨버타 주와 산업용 탄소 가격제 관련 협약을 체결하며, 아시아향 신규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. 한편 환경단체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반발
	● **영국 규제당국, 신용평가사의 ESG 반영 방식 일관성 부재 경고** (2026.05.20, IPE) 영국 금융감독청은 신용평가사들의 ESG 반영 방식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, 투명한 공시 촉구. 미국에서도 23개 주 법무장관이 무디스·S&P·피치에 ESG 기반 등급 강등 철회를 요구하는 등 최근 ESG 반영 방식을 둘러싼 압력 고조
Corporations	● **NextEra, Dominion 인수로 세계 최대 전력 기업 탄생** (2026.05.18, ESG Today) NextEra가 Dominion Energy를 $67B에 인수하는 계약 발표. 이번 인수로 110GW 발전 설비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제 전력 유틸리티 기업이 탄생. 또한 재생에너지·배터리 저장 세계 1위, 미국 내 가스 발전 1위, 핵발전 2위에 위치
	● **HSBC, 중국 클린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출 프로그램 신설** (2026.05.18, ESG Today) HSBC가 중국 청정에너지·저탄소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$4B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. 청정에너지·EV·AI 데이터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며,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
Funds	● **덴마크 PKA, 고위험 녹색 투자 전략 재검토** (2026.05.16, ENERGYWATCH) 덴마크 연기금 PKA는 고위험 녹색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후 투자 전략 재검토에 나섬. 해당 연기금은 노르웨이 배터리 기업 Morrow 파산으로 큰 손실을 입음. 이에 정부 보조금이나 손실 분담 등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 없이는 중국·미국과 경쟁이 어려운 녹색 산업에 추가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
	● **캐나다 PSP, 미국 청정에너지 자산 1.4GW 매각** (2026.05.20, Net Zero Investor) 캐나다 연기금 PSP는 1.4GW 규모의 미국 청정에너지 자산을 매각. 매각 대상은 미국 3개 주에 걸친 수력·재생에너지·에너지 저장 자산. 한편 캐나다 내 청정에너지 자산 및 개발 파이프라인은 유지. 연기금 측은 장기 인플레이션 연동 현금 흐름에 대한 익스포저를 유지하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라 밝힘
	● **덴마크 PFA, 기후 목표 후퇴 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 완화** (2026.05.21, AMWATCH) 덴마크 연기금 PFA는 장기 방향성을 유지하는 기업에 한해 기후 목표 하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투자 기준 완화. 이에 Vestas, Coloplast, TotalEnergies 등 포트폴리오 기업의 목표 조정을 용인하기로 결정. 이는 녹색 전환을 완전히 포기한 기업만을 투자 배제 대상으로 삼는 실용적 인게이지먼트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

자료: 언론보도, LS 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투자전략팀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